

## English Worship Service

[Westminster Hall, 11:15 am]

[Pastor: Daniel J. Kim]

Prelude .....	Pianist
* Call to Worship .....	Pastor
Praise & Worship .....	Praise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SangChul Ryoo (Deac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Pasto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Genesis 2:8-17 .....
Anthem .....	Jerusalem Choir
Sermon .....	"Human as Accountable to God" (2) .....
* Hymn .....	542 .....
* Benediction .....	Pastor
* Lord's Prayer Song .....	Congregation

(\* Please stand)

### “Human as Accountable to God” (2)

According to Genesis 2, the humans are given two primary obligations to fulfill before God. First, the humans, as God's stewards and representatives, are to function as the caretakers of God's creation.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v.15). Second, the humans, as God's creatures and children, are to be submissive to God's commands.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vv.16-17). The significance of this command not to eat from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is that God meant for humans to be completely reliant on Him in terms of their ethical and moral standards. They must not presume that they may independently determine or relativize their standard for righteousness. We must understand that the single negative command--"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is given in the context of relative freedom that the humans can experience.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v.16). Basically, the humans are granted freedom within the bounds of divine commandment. The purpose of human free will, then, is not to do whatever one desires, but to desire and accomplish the will of God. Like a train well placed on the railway, we as humans can function most productively and efficiently when we are aligned to God's will. We the creatures of God are essentially like children who ought to depend on the wisdom and discernment of their parents for their survival and maturity. Only by submitting to God's good plan and perfect will, could the humans truly fulfill God's intended purposes for His creation. Thus, we are accountable before God in two terms: (1) Have we fulfilled the works assigned to us? (2) Have we abided by the commands of God?

#### Announcements

We warmly welcome all newcomers to our worship service.

We invite you to join us for fellowship at Room 104 after the service. If you have any special prayer requests, please submit them in the prayer box located at the rear, so that we may continue to pray for you.

Sunday Study Groups are as follows:


- 9:30 am (Room 104) - Spiritual Disciplines and Intercession (led by Pastor Daniel)
- 1:30 pm (Outdoor Cafe) - Youth Bible Study (led by Brother Jimmy Eppley)
- 1:30 pm (Room 902) - Young Adult Bible Study (led by Pastor David John)
- 1:00 pm (Room 601) - Adult Bible Study (led by Brother Ranjan)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학교 예배 및 부서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603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603 호
유년부	오전 9시	701 호	예바다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예바다부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유초등부 연합 2부예배	오전 11시20분	701 호	장년 1부	오전 10시	본 당	
꿈나무영어성품스쿨	오후 4시	701 호	장년 2부	오후 3시30분	702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소요리문답부	오전 10시20분	903 호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 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새가족부	원입반	오전 10시20분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전입반	오후 12시40분	
청년 1부	오후 2시	101 호	세례교육부	1부	오전 10시20분	
청년 2부	오후 2시	1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1 호	직분자양성부	오후 12시40분	606 호	
			새가족환영부	오후 12시40분	802 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유문건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임규현 심진희 정대은 장재원 전도사(교육담당) 구본혜 이진광 교수는 David John Khokhar 교역부장 서명철 장석남 유문건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교육담당목사 양재라 전도사(전도담당)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심진희 정대은 장재원 협동목사 김철홍 김다미엘		
선 교 사 강아곱주환, 김모세이한나, 김원호동아시애,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박진선, 박병연(카자흐스탄) 스토프로바리요, 조남혜, (영글리데 시), 이재을박병진(카보디야),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화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누(인도), 정상진홍성일(말라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리(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행영(러시아), 김인사(현해욱(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수일본), 김나형 · 오정녀(캐나다), 김종일(백순미(타이(노동자), 홀쿠야 광 탕, 썬 코 카, 마이, 랄 사무알, 레이, 난, 쌍 썬다 사우, 키움 랑, 흐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마카엘(미얀마 필리핀, 프르산토, 수레시 수바식 이경섭 알로르 비사루보도 보디소프 린름 수만존(말라위) 김태식 윤영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탁수(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 중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박 노 철  
Senior Pastor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 “사도 바울, 그의 선택” ("The Choice of Apostle Paul")

### ■ 빌 1:12-24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기쁨은 그가 처해 있던 환경이 좋았거나, 그의 인생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갔기 때문에 누렸던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겪어야 했던 많은 삶의 고통, 역경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의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기쁨을 위협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요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1. 환경으로 인한 위기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그가 처음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는 개인 전세방을 얻어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려워져갔습니다. 이제는 로마의 시위대에 붙들리어 손과 발이 묶인 채,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사도 바울의 소망과 기쁨을 결코 빼앗을 수 없었고, 그는 오히려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시위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는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혔던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인도하셔서 복음을 들을 사람들에게로 보내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 2.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한 위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매인바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자, 잘 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 바울이 무대에서 사라지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야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감옥에서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관계의 깨어짐의 깊은 상처와 이쁨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고, 그의 비전과 사명이 흐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3.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기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핍박하는 로마에 왔고 그는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도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능력이었고, 지혜였으며, 그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죽어 천국에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선택을 자신이 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은 철저히 자신의 사명에 맞춰져 있던 것입니다.

####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가 누린 기쁨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택은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삶과 죽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선택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가 나아갔던 기쁨과 순종의 길로 나아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고백이 영원토록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이동만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유문건 목사	송인권 장로
III	오후 2시	박영준 목사	안인호 장로

인레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	시 13:5-6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	5(3)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83(빌 4)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	1(1) 다 합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	35(50)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행 20:22-24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합 께
봉헌 Offering .....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	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세례식 .....	집 레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합 께
설 교 Sermon .....	사도 바울, 그의 사명* 박노철 목사 (The Mission of Apostle Paul)
* 찬 송 Hymn .....	384(434)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	다 합 께
성 시 .....	시 103:2 인 도 자
찬 송 .....	36(36) 다 합 께
기 도 .....	안선광 집사
성 경 .....	행 28:30-31 인 도 자
성경암송대회 시상식 .....	말 은 이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담대하게 거침없이 ... 설 교 자
선교보고 .....	이재훈 선교사
* 찬 송 .....	501(255) 다 합 께
* 축 도 .....	담 임 목사
* 주기도송 .....	다 합 께

##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	I부: 백정숙 권사 II부: 진교숙 권사
성 경 .....	삿 13:1-7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나실인 삼손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림김양언 설 교 박노철·장석남 목사

##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2층 설 교 박노철 목사

##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 교 회 소 식

#### 모 임

1. 전도위원회 회장단 모임 / 16일(주) 오후12시30분 9층 쉼터
2. 비비 전도회 직장인 월례회 / 16일(주) 오후1시20분 702호
3. 루디아 전도회 직장인 월례회 / 16일(주) 오후1시30분 9층
4. 70인 전도대 10월 모임 / 16일(주) 오후2시30분 506호
5. 한나 전도회 직장인 월례회 / 16일(주) 오후3시 903호
6. 사라 전도회 월례회 / 16일(주) 오후3시20분 502호
7. 에스더 전도회 직장인 월례회 / 16일(주) 3부 예배 후 802호
8. 찬양위원회 모임 / 16일(주) 3부 예배 후(오후3시20분) 607호
9. 제1권사회 추계 야유회 / 18일(화) 오전10시 어린이 대공원
10. 제1권사회 직장부 야유회 겸 모임 / 18일(화) 오후6시30분 산너울채
11. 루디아 전도회 월례회 / 19일(수) 오전9시30분 1층 로비
12. 전 도 / 16일(주) 주일전도: 전교인(1,2,3부 예배 후)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순례자와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8일(화)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축호팀(대치삼성 도곡렉슬 롯데캐슬 진달래 대치 I-park, 삼성동힐스테이트 개포주)

오전 10시 70인전도대 화요기도팀(609호)

19일(수)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수요기도팀(609호), 문서전도팀(603호)

오후 1시 70인전도대 특례생 학부모 기도팀(903호)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도르가 전도회(607호)

오후 8시 70인전도대 수요야간팀, 스테반화한티공원

20일(목)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축호팀(은마, 미도 대치현대 역삼역키 개포주공,7단지, 레미안 대치 팰리스)

오전 10시 70인전도대 목요기도팀 603호(11시 202호)

22일(토) 오후 3시 70인전도대 토요노방팀, 빌립 선교회(한티공원)

#### 알 림

1.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칼빈홀)

2. Baby-sitting 운영 /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위해 403호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베들레헴 홀)

3. 영어동시통역 (통역: 김사라 권사) / 2부 예배 시 외국인을 위한 영어동시통역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현장에서 안내위원들에게 Earphone을 받아 사용하신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arphones are available to help your service,

please ask an usher at the door to assist you. (Interpreter : Sarah Kim)

##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노은경	교육2국	청년2부	본인	지수민	교육1국	중등부	오상은	최아준	교육1국	영아부	최근우
최혜원2	교육1국	중등부	오상은	이주학	교육1국	중등부	한승협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앞면에서 계속

4. 금일 세례식 실시 / 10월 세례식이 금일 10월16일(주일) 23부 예배 시 있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607호 세례교육부)로 문의바랍니다.

5.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상담 주중에도 상담 가능 / 주일 오전 11시30분-오후 1시 (310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6. 의료 상담 / 정철웅(일반외과) 주일 오전10시30분 - 오전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902-5922

## 지도자의 위기

조종사의 실수나 판사의 오판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작은 실수가 많은 사람의 생사를 가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보통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는 친근감이 있으나 지도자가 보통 사람이 져야할 짐이나 지켰다면 그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지도자의 자질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가 많지 못하다는 것에 우리 국민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다가오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조차 못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속이야 끌어터지든 말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한다면 이 민족과 국가의 미래가 어찌될까 걱정이다.

지금 우리 국민의 도덕성과 가치관이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서 폭발 직전에 있음을 감지하고 있는 지도자가 어디에 있는지 만나고 싶다. 오늘은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여 죽어 가는 민족의 생존에 빛을 보 여줄 수 있는 각계 각층의 지도자가 많이 나타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